

與 수도권 재보선 공천 ‘골머리’… 송영길·김용 출마지 관건

모든 지역 전략 공천 방침 내세워 인천 계양을, 송영길·김남준 경쟁 사법리스크 김용 출마 두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지역 공천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수도권 지역구를 두고 당 안팎의 경쟁이 치열해 매끄러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수도권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과 경기 평택을, 인천 계양을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국회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곳은 인천 연수갑(민주당 박찬대), 경기 하남갑(민주당 추미애) 등이다. 수도권에서만 총 5곳이 비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선 전략공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지난 17일 전대진 변호사를 1호 인재영입 인사로 영입했다. 전 변호사는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에 전략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선 모든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등과 1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전략공천의 기준으로는 ‘경쟁력 있는 지역 인사’를 내세웠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구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아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모양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쟁 중이다.

송 전 대표의 경우 당초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지만, 당의 요구에 따라 다른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내에선 송 전 대표의 인천 연수갑 전략공천도 언급되지만 해당 지역구는 박남준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송 전 대표보다는

박 전 시장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다. 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이 사퇴하면, 송 전 대표가 경기 하남갑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의 하남갑 전략공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난제에 속한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출마를 시

사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경기권 출마를 희망함에 따라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다만 경기 평택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안산갑에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방문 일정에 참석했다. 사전에 합의된 동행 일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김 전 부원장이 사실상 선거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위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李 “민주주의, 국민 삶 지키는 핵심 체제”

대통령, 4·19혁명 기념식 참석
총 70명 유공자들에게 포상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 주제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할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라며 “4·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재의 군화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운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들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놓았다”고 했다.

66주년을 맞은 4·19 혁명에 대해서

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한다”며 “분연히 떨쳐 일어난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면서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9혁명 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총 70명의 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뤄졌으며, 이 대통령은 이 중 5명에게 직접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서예진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펼친 윤희숙 전 의원, 박수민 의원과 오찬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중도 확장’ 혁신 선대위 구성

공동 선대위원장에 박수민·윤희숙 청년·장년 등 폭넓은 선거조직 구상 정책 뿐 아니라 정부 견제 필요성 강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경선 경쟁자였던 박수민 의원(조선·서울 강남을)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오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과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하게도 저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두 분께서 흔쾌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선거 기간에 함께 고생해 주기로 하셨다”며 “앞으로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그간 오 후보는 ‘혁신 선대위’를 강조하면서 당의 혁신을 촉구해왔다.

그는 “혁신 선대위의 뜻은 중도 확장 선대위라고 설명하는 게 아마 가장 간명할 것 같다”며 “각계각층의, 청년과 중년과 장년이 함께 어우러진,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의 대통합의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꾸준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장 대표를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자체가 후보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가 정책 경쟁을 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오만함, 그리고 독재에 대한 견제가 이번 지방선거 표심에서 의미 있게 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정 후보는) 정책 경쟁만 하지는 취지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정책 경쟁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오만함과 폭주를 하는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저희의 충정도 함께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마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연성 독재가 아마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정청래 “지선 승리가 곧 정부 성공”

성남 모란시장 찾아 지지 호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성남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일을 잘하려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며 지지를 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방문한 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식도 오르고, 뉴스도 보고 싶고, 얼굴에 웃음꽃도 피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제주시사 후보(경선)를 끝으로 광역단체장 공천이 끝났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적 절차로 뽑힌 추미애, 김병욱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이 한 팀이고 당에서 입법적 뒷받침해 현장에서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원팀을 응원해주지 않았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민생을 푸는 것이 해답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지선을 압승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의 실용주의 현장의 상징인 모란시장은 도축장으로 가득했거나 상인들의 협조 하에 현대화시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이재명식 실용정치, 실용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